



한솔제지, 2012 환경 나눔 캠페인 공모전 시상 종이 한 장으로 따뜻함을 나누세요~

한솔제지는 지난 8월 21일 이상훈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수상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로 본사 23층 H-Q홀에서 환경 나눔 캠페인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. 환경 나눔 공모전은 친환경 재생용지 사용으로 지구도 살리고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는 한솔제지 '1% 나눔운동'을 표현하는 광고 및 엠블럼을 선정기 위해 진행됐다. 한솔제지 '1% 나눔운동'은 친환경 재생용지 판매수익금의 1%를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.

자료제공 | 한솔제지

대상 상금 500만원 포함, 총 1200만원 상금 규모로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총 6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될 만큼 호응이 뜨거웠다. 심사기준은 주제적합성 30%, 창의성 30%, 상품성 20%, 완성도 20%로 총 3차례에 걸쳐 심사가 이뤄졌다. 1차는 한솔제지 마케팅팀이 70점의 후보작을 선별했다. 2차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유명 기획사와 디자인 회사의 팀장 및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솔제지 디자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참여했으며, 최종 후보 12작을 선정했다. 최종 3차는 한솔제지 본사 전체 임직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참여했는데, 이를 통해 각 부문 수상작이 선정됐다.

공모전 대상의 영광은 흥익대 재학 중인 윤영지, 하세웅 씨의 '종이 한 장으로 따뜻함을 나누세요'가 차지했다. 최우수상은 광고와 엠블럼 부문에서 각각 1작품씩 2작품이, 우수상은 각 부문 2작품씩 총 4작품이 선정돼 총 7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. 이외에도 5작품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다. 이번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디자인 전문 잡지인 월간디자인과 디자인 포털 사이트인 디자인 정글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며, 향후 한솔제지 제품 및 각종 팸플릿과 홍보책자에 지속적으로 사용돼 재생용지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친환경 재

생용지 사용 저변을 넓히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.

공모전 대상의 영예를 안은 하세웅 씨는 "재생종이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태어나는 종이로 일반용지보다 환경을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 이상의 가치, 즉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'이불'이라는 콘셉트를 채용했는데, 생각하지도 못한 큰 상까지 받게 돼 너무 기쁘다"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.

친환경 기업으로서 1% 나눔 운동 활발

한솔제지는 현재 제지회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생용지 개발하고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환경과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하면서, 자연스럽게 친환경 재생용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취지의 '1% 나눔' 운동을 기획했다. 이에 따라 지난 4월에는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'폐지수집 독거노인 희망 쌀 지원' 협약식을 맺고 쌀 및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다. 6월에도 국내 최대 청소년 자원봉사축제인 '한톨 나눔 축제'에 협찬 및 참가해 지구촌 불우 아동에게 지원될 노트 6만권에 사용되는 용지 전량을 친환경 재생용지로 지원했다. 